

함평군, 가을철 꿀벌 사양 관리 양봉 기술교육 실시

센터 교육관서 양봉연구회원 80여 명 대상 진행



함평군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센터 교육관에서 양봉연구회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가을철 꿀벌 사양 관리 양봉 기술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지역특화품목 신기술실용화 현

장 컨설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교육에는 로열젤리 등 다양한 봉산물 상품화로 지역 양봉소득증대를 일군 한성재 씨가 강사로 참여해 가을철 꿀벌 사양관리법 등을 교육했다.

특히 한 강사와 함평군 양봉연구회원 정대범 씨는 자신이 5년간 직접 키운 양봉 밀원수 500주와 벌통 스티로폼 60개를 지역 양봉농가에 각각 무상 기부하면서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

함평군 양봉연구회 정해신 회장은 “양봉현장에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및 대처방안 위주로 교육이 이뤄져 지역양봉농가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만족감을 표했다.

센터 관계자는 “함평 나비벌꿀을 지역 대표 특산물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품질향상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오는 10월 예정인 양봉농업인 한마음 대회 및 전국 양봉인의 날 행사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 양봉산업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훈 기자

진도군, 수시분 개별공사

지가 열람·의견 접수

진도군이 올해 수시분 개별공사 지가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진도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 민원실에서 열람과 의견을 제출 받는다.

올해 상반기 토지가등이 발생한 개별토지는 1,100필지로 공정하고 신뢰되는 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전문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마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실시하고 있다. 열람 후 조사된 지가에 의견은 23일까지 의견제출서를 진도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적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할 계획이다.

또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방침이다.

진도=조상용 기자

목포시, 가을 관광객 유치 총력

공공기관 찾아 홍보

목포시가 가을 관광객 유치를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2일부터 5일까지를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시청 직원 및 관련 사회단체가 합동으로 전남도청, 지방경찰청,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 등 전남도내 유관기관을 방문해 가을여행을 낭만향구 목포로 올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번 관광객 유치전은 맛의 도시 선포, 국제솔로시티 인증,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다양한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었고, 해상케이블카 개통(9.6.)·전라남도 혁신박람회(9.6.~9.8.)·목포(愛)가을(藝)페스티벌(樂)(8.30.~10.27.)·항구축제(10.3.~10.6.) 등을 서남권 관광거점도시 목포로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마련

됐다.

집중홍보기간 첫날인 2일에는 시 직원 및 새마을협의회원들이 전남도청, 전남개발공사, 전남문화관광재단을 찾아 출근하는 직원과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전을 펼쳤다.

새마을협의회 관계자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시 관광홍보에 일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을 계기로 일상에서도 시 행사나 관광지를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목포 관광 활성화의 호기를 맞고 있다. 시민들께서도 천만 관광객이 찾는 목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가을 여행을 계획하시는 국민들께서는 맛과 근대역사문화의 도시 목포를 찾아 가을 항구의 낭만을 만끽해 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김광훈 기자

완도군, 2019 정부합동평가 대비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완도군은 지난 8월 30일, 군청 상황실에서 13개 부서의 지표담당 팀장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정부합동평가 대비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정석호 부군수 주재로 개최된 보고회는 총 112개(장량 78개, 정성 34)의 정부합동평가 지표 추진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각 지표별 담당 팀장이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실적 제고방안을 논의하여 연말까지 지표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군은 평가 기간이 종료되는 12월 말까지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진지표에 대해서는 대책 보고회도 지속적으로 병행하여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 있다.

정석호 완도부군수는 “합동평가

는 우리 군의 행정력을 대내외적으로 평가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만큼 부서장과 지표담당 팀장들은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심과 책임감을 갖고 실적 향상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을 중앙부처와 함께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는 5대 국정목표, 122개 세부 평가지표를 평가하고 있다.

완도=김광수 기자

장흥군 “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말하다”

군수와 함께하는 청소년 정책토론회 개최

장흥군은 지난 8월 31일 장흥군청소년수련관 공영장에서 군수와 함께하는 청소년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행복한 장흥을 우리 힘으로, 2019 장흥군청소년 정책토론회 청소년 삶의 환경을 말하다’란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장흥군 청소년에 대한 비전과 발전방향을 논의 하는 취지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지난 1년 동안 장흥군 청소년수련관(위원장)의

도움을 받으며 토론회를 준비했다.

행사에서는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수련관운영위원회 회원과 지역 청소년이 함께 지역 안전, 청소년의 진로, 문화 활동, 지역 안전망 조성, 청소년 활동 공간 마련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고 제안했다.

제안 발표자는 신주원(장흥고 3) 학생과 김아현(전남예술고) 학생이 맡았다.

청소년 안전 강화, 청소년 참여활동 및 진로에 대해 설명하고,

프로그램과 시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의견을 제안하는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자유토론에서 청소년들은 우리군 안전 문제로 어두운 지역 밝혀주는 사업과, 청소년 참여활동 확대를 SNS서포터즈 활동과 TAP정책 진로 체험 활동을 위한 진로센터 건립에 대해 제안했다.

정중순 군수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는 지역은 지속 발전이 가능한 도시”라며 “시대 흐름에 맞게 지자체가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고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및 제안은 장흥군의 미래 교육 비전을 세우는 일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영일 기자

강진 야간여행 ‘나이트 드림’ 진행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은 지난달 31일 관광객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강진의 아름다운 밤 풍경을 알리는 야간여행 ‘나이트 드림’을 진행하였다.

‘나이트 드림’은 강진의 야간 관광자원을 알리고 숙박을 유도하

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었으며 강진의 주요 관광지 및 야간 경관 명소를

를 관람하는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이뤄졌다.

행사는 가우도, 사의재, 영랑생가, 세계모란공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사의재 야간 마당극 공연, 영랑생가 한지등 들고 야경관람, 세계모란공원 시낭송 및 음악 버스킹

공연, 경품행사 등 다채롭고 감성적인 체험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나이트 드림에 참가한 한 관광객은 “특히 세계모란공원 시낭송과 음악행사는 문화와 예술의 고장인 강진과 잘 맞아 떨어지는 감성적인 행사였다고 생각한다. 기회가 되면 또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진군문화관광재단 이승욱 이사는 “나이트 드림은 주간 위주의 단조로운 관광패턴에서 벗어난 새로운 체류형 관광콘텐츠로서, 강진군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나이트 드림’을 통해 관광객 재방문 및 체류시간 연장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